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여름시역 준비를 위한 모임

일시 : 2024년 6월 16일(주일) 점심 식사 후
장소 : 주사랑교회 교육관

3. 음향장비 수리 중

교회 음향장비로 사용해왔던 사운드아트 파워드 믹서 XP-1200(MP3) 장비가 ①파워서플라이, ②메인보드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 중입니다. 음향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업체-슈만악기)

3. 교회건물 배수관 공사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9시 부터
사유 : 지하 1층 누수가 심각합니다. 성원상가의 모든 배수관이 지하의 천장으로 통과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배수관 시설의 노후화 및 기타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지하 1층 샘교회 시설 운영에 피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수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전교인 전도 / 슬러시 기계 사용법

매주 금요일 오후 3-6시에 전교인 전도가 교회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슬러시 기계 자율적인 사용은 매주 주일 사용할 수 있어요.

4. 구역예배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6월 20일(목) 오후 2시 박영대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변경은 담임목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일도 가능!)

6. 2024년 6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4.25 ~ 5.25)

6/04(화)-노승현 어린이 6/05(수)-이다남 집사(-4.30) 6/10(월)-최서영 어린이
6/10(월)-김승빈 어린이 6/13(목)-전서운 어린이 6/17(월)-임명순 사모
6/27(목)-이재우 어린이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06/16 정애자 권사
- 06/23 이가을 권철
- 06/30 박제연 집사
- 07/07 이광근 안찬삼
- 07/14 임명자 집사
- 07/21 임명숙 집사
- 07/28 김혜숙 권사
- 08/04 정애자 권사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6/16	여름시역을 위한 준비모임 교단 통일주일 / 특수전도주일
06/17	교회건물 하수 배관 공사
06/23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 제7회 통일기도회(은혜제일교회)
06/30	선교한신예배 (모로코)
07/01	첫날맞이 월삭예배 통일선교현연전전과제(2차)
07/07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07/14	카도슈아카데미 / 교회교육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사백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썬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7권 24호
창립 2017.11.25

2024년 6월 16일
성령강림 후 네 번째 주일

2024년 표어 (행 9:31)
성령과 동행으로 평안과 부흥 누림
은혜와 진리의 말씀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사공동체
섬기고 전하는 사랑공동체



통일주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신 2:3)

이름 :

주사랑교회 사명서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한승훈 목사 (010-4724-3562)
교육간사 : 임명순 사모 (010-8177-0617)
찬양악동 : 아하바
피아노 : 임명순 한은총
드럼 : 한희락 한태민
예배영상 : 한성걸
대표기도 : 정애자 권사 (다음주: 이가을 권철)
헌금위원 : 한태민 양비 (다음주: 한희락 학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
3층 301호 (세류3동, 성원(△)상가)
Tel. 031) 234-1691
Fax. 070) 4015-1691
0504) 472-3562
<https://jusrang.org>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00분 (통일주일 / 특수전도주일) 인도:집례자

- ※ 목도 시 20:1~4, 7 다 같이
- ※ 찬송가 찬 2장 다 같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 사도신경 다 같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이
- 성서교독 No.102 나라사랑(4) 다 같이
- 찬송가 찬 288장 다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대표기도 정애자 권사
예전도장/중보기도장
- 성경봉독 마가복음 2:1~12 (신 55) 정애자 권사
- 광고 인도자
- 말씀인도 그 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한승훈 목사
- 봉헌찬송 찬 430장 다 같이
(헌금위원 : 한태민 어린이)
- ※ 축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일조 : 김혜숙 정애자 한은총 / 이광근박제연 임명순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호 오동영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이광근 박제연
- 교회학교 :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 감사헌금 : 김막동 김혜숙 오현수 오현진 이옥성(이사) 전복순 정바울 정애자 한승훈 임명순 한상수 오경자(매주)
- 구역헌금 : 김혜숙 임명순 / 박제연
- 차량헌금 : 김혜숙 정애자
- 선교헌금 : 한태민 / 이광근 박제연 건축헌금 : 이광근 박제연
- 건축헌금 : 이광근 박제연
- 후원헌금 : 박미란 세한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국내선교(오주교훈스쿨) 	해외선교(모로코) 	해외선교(타지키스탄)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	---	---	---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오후 1:00 **새로 소중히 새로 용남** 교육부장
 경배찬양 다 함께
 성경봉독 **마태복음 25:14-30 (신 43)**
 말씀제목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말씀인도 박제연 집사

통일 선교비전 기도회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마태복음 13:3-9 (신 21)**
 말씀제목 **복음으로 통일로**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1~21 (신 200)**
 말씀제목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마가복음 4:26-34 (신 59)**
 말씀제목 **골방에서 들음이 필요한 이유**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새벽분문**

16일(일) 행 21:1-16	중요교사서명
17일(월) 행 21:17-36	야비하고 용감한 기적
18일(화) 행 21:37-22:11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하여
19일(수) 행 22:12-29	열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20일(목) 행 22:30-23:11	외적 주의 사명에 매여
21일(금) 행 23:12-35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해
22일(토) 행 24:1-23	거짓 상환 원한 버릴
23일(일) 행 24:24-25:12	가솔수 없는 복음의 영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⑥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세운 천부장들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요? (삼하 18: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 ⑦ 압살롬이 패전하여 도망하다 붙잡히게 된 이유는?(삼하 18: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 ⑧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인물은?(삼하 18:14~15)
 ()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 ⑨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삼하 18:33)
 왕의 ()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 ⑩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한 후, 3년이 지나자 다시 다윗에게로 데리고 와서 화해시킨 인물과 이후의 다윗의 반응은 무엇인가요?(삼하 14:23~24)
 ()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을 보지 못하니라
- ⑪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아파하며 오랫동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다윗을 책망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한 인물은? (삼하 19:5~7)
 ()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하던 중 다윗이 만난 사람으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인물로 다윗을 심히 모독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삼하 16:7~8)
()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 ② **시므이의 혹독한 저주를 받은 다윗의 태도는?**(삼하 16:11~12)
또 다윗이 아버지사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 ③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밋세바를 취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벌과 고통은 무엇인가요?**(삼하 16:21~22, 삼하 12:11~12)
()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됴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나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하나라
- ④ **다윗이 피난할 때 압살롬에게로 위장 잠입한 인물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뒤쫓아 가서 피곤해할 때 치자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마시켜 다윗을 구한 인물은?** (삼하 17: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하셨음이더라
- 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광야에서 지친 다윗과 그 군사들을 붙잡히 여겨 음식과 음료로 선대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삼하 17:27~29)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논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가 침상과 대아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하고 ()하고 () 함이더라

2024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7회 통일주일 공동기도문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단 4:17) 하나님 아버지,

분단과 동족상잔의 고난 속에도 대한민국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로 성장시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벧전 2:9)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한반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온 성결인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통일주일로 지키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돌을 하나로 만드신(엡 2:14)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과 미움 속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생활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마 5:9)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기근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갈수록 신냉전 체제가 공고해지는 이때에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결교회를 비롯한 온 한민족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엡 6:11)로 무장한 통일기도운동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견고해진 북한의 3대 세습 우상숭배 체제와의 모든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게 하소서.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讎 땅에 참된 희년을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미리 통일을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되어,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 전 북한에 있었던 82개 성결교회를 비롯하여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남북이 함께 전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송가..... 찬 288장.....	다	같	이
대표기도.....	박영대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8: 12~21 (구 933).....	임명순	사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삶의 나눔.....	다	같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찬양..... 찬 301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이 성전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임을 천명합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언약을 지키셨음을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사건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를 증명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입증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의 건축은 왕의 중요한 직임 중 하나였습니다. 신전의 낙성식은 자신의 치적을 만방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대업을 이루면 대단한 사람인 양 으쓱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작은 성과에도 생색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식에는 솔로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떤 성전으로 세워져가기를 기대하실까요?

첫째, 주께서 계신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주께서 계실 처소라고 선언합니다.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공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의 신전처럼 크고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모셨다면 누추하고 초라해도 주님의 처소가 됩니다.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완성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을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결코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며, 언약궤를 보관하는 처소일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엄과 영광중에 계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성취됩니다. 성전의 거룩한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요 2:19).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기처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된 자기 육체”(요 2:21)를 기반으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마 18:20) 말씀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습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동역하는 새로운 성전을 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새 부대로 지음 받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에 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연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요 14:26, 행 2:38).

둘째, 주께서 세우신 성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도 자기의 치적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하고,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올린 성전인데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순수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안목이 없으면 내가 한 것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성전에 넘어지고, 초라해 보이는 결과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세우시는 성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롬 14:17).

셋째, 주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할 일과 솔로몬이 할 일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건축을 준비하는 사명을 다했고, 솔로몬은 시공자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나은 사명도 없고, 보다 못한 사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 준행하는 충성 여부만 있을 뿐입니다(대하 35:4~6).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사명을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성실하게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유능하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서둘러서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롬 8:28).

■ 결론

솔로몬 왕의 설교는 성전 봉헌을 위한 봉헌사이지만, 성전을 완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역사임을 간증하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초기 집권할 당시 그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솔로몬의 이 고백은 교전을 넘어 경전이 되어 오늘 우리를 더 거룩한 자리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힘써온 모든 일들도, 두고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